

A Study on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Teaching Jobs of 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 Focusing on Variables of Teacher Efficacy, Educational Environment, and Fellow Teachers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만족도 결정요인 연구 - 교사효능감, 교육환경, 동료교사 변인을 중심으로 -

Eun-Joo Choi¹, Mi-Na Lee²

최은주¹, 이미나²

¹ Director, Happy Life Institute, South Korea, Agneo5484@hanmail.net

² Professor, Welfare Counseling Convergence Department, Kwangshin University,
lmn4780@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Mi-Na Lee

Abstract: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nfluence of teacher efficacy (factor 1), educational environment (factor 2), and peer-teacher relationship (factor 3) as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teaching profession of 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this end, a three-step model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confirm the effects of teacher efficacy,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eer teacher characteristics on teaching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ll items, such as teaching activities and life guidance, which are factors of teacher efficacy, and educational environment factors, such as educational facilities, teaching job burden, academic atmosphere, and peer-teacher relationship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eaching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factors 1 and 2 together was higher than that of one factor alone, and the combination of factors 1, 2, and 3 had the highest effect on the effect on teaching job satisfac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ed the effects of the research results, teacher efficacy,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eer-teacher relationships on teaching job satisfaction in multidimensional and integrated aspects. In addition, this study has the implication of presenting necessary evidence for teachers themselves and education policy makers who want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teaching profession.

Keywords: Satisfaction With Teaching Job, Teacher Efficacy, Educational Environment, Peer-Teacher Relationship, Elementary School Teachers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만족도 결정요인으로서 교사효능감(1요인), 교육환경(2요인), 동료교사관계(3요인) 특성의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교사효능감 특성, 교육환경 특성, 동료교사 특성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교사효능감 요인인 수업활동과 생활지도 항목과 교육환경 요인인 교육시설, 교직 업무부담, 학업분위기 및 동료교사 관계 등 모든 항목에서 교직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직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Received: January 24, 2023; 1st Review Result: March 11, 2023; 2nd Review Result: April 07, 2023
Accepted: April 30, 2023

1요인이 단독으로 끼치는 영향보다 1요인, 2요인이 함께 끼치는 영향이 더 높았고 1요인, 2요인, 3요인이 합쳐진 경우가 가장 높은 영향을 끼쳤다. 연구결과, 교사효능감, 교육환경, 동료교사 관계가 교직만족에 끼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이고 통합적 측면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교직만족을 높이고자 하는 교사 자신 및 교육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핵심어: 교직만족도, 교사효능감, 교육환경, 동료교사관계, 초등교사

1. 서론

학교 내외의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권심리 및 신체적, 정서적 부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1].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영웅심리에 빠진 통제 불가능 학생으로 인해 교사의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교과목 가르치는 업무 외 학생부 작성 업무의 과중이나 학교 평가 업무에 대한 압박감 등은 교사의 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2]. 이러한 학교 현장의 상황으로 인해 중등교사들의 교직 만족도 및 사명 의식은 점차 하락되고 있다.

OECD가 제시한 국제 교수-학습 조사 연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13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사회 평가 즉 “교직은 사회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반면, 교직만족도 즉 “나는 이 학교에서의 업무 수행에 만족한다”, “나는 전반적으로 내 직업에 만족한다” 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3]. 또한 교직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측면인 교사효능감 즉 ‘학생에 관심이 적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다양한 평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등과 같은 항목은 OECD 평균보다 대략 10%p에서 16%p 정도 낮게 나타났고, TALIS 2018에서는 동일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3-5%p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주체인 교사의 교직만족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될 필요성을 알게 한다.

교사의 교직만족도는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의 내용에 적절한 교육환경은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의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5][6]. 교사역량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7][8]에서는 교사의 직무환경이 교사의 역량 증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교사의 역량 증진은 곧 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교직만족도와도 이어진다. 또한 교사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행정업무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업무, 필요하지 않은 업무, 그리고 그 경계가 모호한 업무들이 존재하며, 적응기 및 성장·발전기 교사들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록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성장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6]. 이외에 행정업무 및 수업분위기 또한 교사의 교직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7], 교육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고 있는 동료교사와의 관계(태도, 협조, 갈등 등) 역시 교사의 교직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8]. 이러한 사실은 교사의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함을 알게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보면, 교직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여 왔지만 교사효능감을 비롯해 교육환경, 동료교사와의 관계 등을 함께 요인으로 한 교직만족결과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한 교직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이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이며[9], 교사의 교수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실행 및 조직하는 능력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신념을 의미한다[10]. Tschannen-Moran과 Hoy(2001)는 교사효능감은 학생의 동기화, 성취감,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내, 열정, 책임감, 교수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이 교사의 수업 헌신도, 생활지도 헌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11]. 이처럼 교사효능감과 교직만족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교사를 둘러싼 교육환경은 교사의 교직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교육환경으로서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일관된 강조가 있었으며, 물리적 환경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증가하고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등 수업전반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12]. 또한 좋은 물리적 환경은 교사들의 업무수행능력과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13]. 교육의 물리적 환경은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교사의 수업에 요구되는 학습 공간과 시설, 교수행위에 필요한 용구 및 용품, 특정 건물과 공간에 대한 접근성으로 물리적 환경을 설명할 수 있다[14].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현장 환경과 교직만족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5], 특히 TIMSS 2019자료를 기반으로 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이스라엘,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일본 등의 중학교 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사의 학교 환경이 교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즉 교사는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시설, 교육행정업무, 학업분위기 등과 같은 교육환경에 따라 정서적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교직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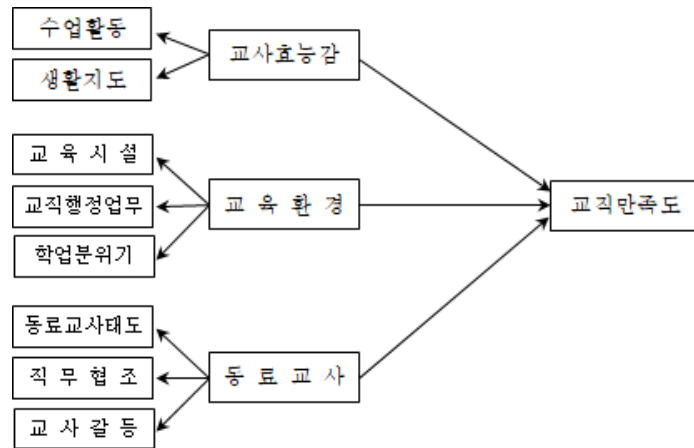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며 타인과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행복감을 느낀다[17]. 교사의 경우, 다양한 요인들이 교직 만족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가 교직 만족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18]. 교사가 동료 교사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무스트레스는 낮고 교직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9], 좋은 동료교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료교사 중심적인 기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20]. 교사가 교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사와의 갈등은 교직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사갈등은 관료적인 조직형태에서 오는 관리자나 행정가의 일방적 지시나, 불공정한 업무분담,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교권침해, 부족한 행정지원, 과다한 업무, 동료교사들과의 가치관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21]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교사의 개인 성격적 특성, 신경증 등이 교사 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22]. 이처럼 교사의 교직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는 동료교사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효능감 특성, 교육환경 특성, 동료교사 특성, 교직만족도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효능감 특성, 교육환경 특성, 동료교사 특성은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주제인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만족도 결정요인 연구를 위한 회귀방정식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회귀방정식모형

[Fig. 1] Regression Equation Model

2.2 연구 대상

[표 1] 연구대상

[Table 1] Subject of Research (N=2447)

	배경	(명)	(%)
성별	남자	787	32.2
	여자	1660	67.8
교직 이수	사범대학	1652	67.5
	일반대학 교직과정	645	26.4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150	6.1
직위	보직교사(부장)	602	24.6
	평교사	1667	68.1
	기간제 교사	178	7.3
담임여부	맡고 있다	1496	61.1
	맡고 있지 않다	951	38.9

본 연구는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년 청소년 패널 1차 자료에서 활용한 ‘교사 설문지’로서 학교 교육 내용과 특성, 학교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설문에 참여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전체 5학년 학급 담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성별은 남자 787명(32.2%), 여자 1,660(67.8%)로서 여자가 과반수로 많았으며, 교직 이수는 사범대학은 1,652명(67.5%), 일반대학교 교직과정 645명(26.4%),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150명(6.1%)으로 사범대학이 과반수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보직교사(부장) 602명(24.6%), 평교사 1667명(68.1%), 기간제교사 178명(7.3%)으로 평교사가 과반수로 가장 많았다. 담임여부는 맡고 있다 1496명(61.1%), 맡고 있지 않다 951명(38.9%)로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과반수로 많았다. 이 내용은 [표 1]과 같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설문지는 교사효능감, 교육환경, 동료교사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한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하위요인과 대표문항 및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표 2]와 같다.

교사효능감 척도 중 수업활동 척도는 교사의 수업활동에 학생들이 말 듣지 않는 이유 파악가능, 학생 학업 능력에 대한 판단정확, 교과 내용 따라 수업방식조절가능, 학생의 관심정도파악가능, 능력 없는 학생이 흥미 없는 이유 분석가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학생에 대한 수업활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6이었다.

생활지도 척도는 교사가 생활지도에 문제행동이유 확인 가능, 생활지도 시 정보 활용, 문제 학생지도가능, 불우한 학생 지속 지도가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6이었다.

교육환경 척도 중 교육시설 척도는 교육지장요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물부실, 냉난방 및 조명 부실, 교실부족, 수업용멀티미디어부족, 교과교실미비 및 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교육시설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3이었다. 교직행정업무 척도는 교사가 인식한 수업 외 학교 업무 부담정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파행적 교육과정운영, 행정업무부담, 생활지도부담, 진도부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행정업무 부담이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587이었다. 학업분위기 척도는 교사가 인식한 수업방해요인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교육, 학생수준차이, 쉬운 학교시험, 수업 중 산만함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학업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538이었다. 동료교사 관계 척도 중 동료교사태도 척도는 교사가 인식한 동료교사태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기가 높다, 열의를 가지고 일한다,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는다, 학업성적을 중요시한다, 인성교육을 중요시한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중요시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동료교사태도인식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7이었다. 직무협조 척도는 교사가 인식한 동료교사와의 직무관련협조관계 내용으로서, 동료교사의 도움을 쉽게 받음, 교사 간 가치와 신념공유, 상호협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동료교사와의 직무관련협조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3이었다. 교사갈등 척도는 교사가 인식한 동료교사와의 갈등관계 내용으로서, 다른 교사업무에 무관심, 의사결정시 교사간 의견충돌, 심한 직위에 따른 차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동료교사와의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58이었다.

교직만족도 척도는 교사가 인식한 교사만족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대감, 다시 직업선택 시 교사선택, 교육적 경험, 지속적 전문적자극과성장, 지난 2년간 직업에 만족, 학교에 긍지, 자기발전에 도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교사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6이었다. 위 교육환경 척도 중 교직행정업무, 학업분위기 척도가 일반적 척도의 신뢰도 기준인 .6보다 조금 낮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설문지 항목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차이로 해석되고, .5이상이어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2] 측정변수

[Table 2] Measurement Variable

요인	하위요인	문항	문항수	신뢰도
교사 효능감	수업활동	1, 2, 3, 4, 5	5	.786
	생활지도	6, 7, 8, 9	4	.806
교육 환경	교육시설	1, 2, 3, 4, 5	5	.793
	교직행정업무	6, 7, 8, 9	4	.587
	학업분위기	10, 11, 12, 13	4	.538
동료 교사 관계	동료교사태도	1, 2, 3, 4, 5, 6	6	.807
	직무협조	7, 8, 9	3	.823
	교사갈등	10, 11, 12	3	.658
교직만족도		1, 2, 3, 4, 5, 6, 7	7	.886

3. 연구결과

3.1 변수의 실태

[표 3] 측정변수 기술통계

[Table 3] Measurement Variable Descriptive Statistics <N=2447>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교사 효능감	수업활동	5.00	25.00	3.77	.75	-.129	1.392
	생활지도	4.00	20.00	3.64	.72	-.039	.391
교육 환경	교육시설	5.00	25.00	3.35	.67	-.425	-.102
	교직행정업무	6.00	20.00	3.56	.71	-.193	-.158
	학업분위기	5.00	20.00	3.35	.66	-.137	.046
동료 교사 관계	동료교사태도	6.00	30.00	3.64	.73	-.441	1.394
교사 관계	직무협조	3.00	15.00	3.72	.74	-.299	.187
	교사갈등	3.00	15.00	2.50	.50	.335	.417
교직만족도		7.00	35.00	3.63	.73	-.225	.275

본 연구의 측정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표본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 첨도를 실시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교사효능감 경우, 수업활동은 최소값(5), 최대값(25), 평균(3.77), 표준편차(.75)로 나타났다. 생활지도는 최소값(4), 최대값(20), 평균(3.64), 표준편차(.72)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중 교육시설은 최소값(5), 최대값(25), 평균(3.35),

표준편차(.67)로 나타났다. 교직행정업무는 최소값(6), 최대값(20), 평균(14.26), 표준편차(2.53)로 나타났다. 학업분위기는 최소값(5), 최대값(20), 평균(3.35), 표준편차(.66)로 나타났다. 교직행정업무는 최소값(6), 최대값(20), 평균(3.56), 표준편차(.71)로 나타났다. 동료교사관계 중 동료교사태도는 최소값(6), 최대값(30), 평균(3.64), 표준편차(.73)로 나타났다. 직무협조는 최소값(3), 최대값(15), 평균(3.72), 표준편차(.74)로 나타났다. 교사갈등은 최소값(3), 최대값(15), 평균(2.50), 표준편차(.50)로 나타났다. 교직만족도는 최소값(7), 최대값(35), 평균(3.63), 표준편차(.73)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왜도, 첨도는 절대값 2이하로 나타났으므로 표본의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3.2 가설 검증

가설 1. 교사효능감 특성(수업활동, 생활지도), 교육환경 특성(교육시설, 교직업무부담, 학업분위기), 동료교사 특성(동료교사 태도, 직무협조, 교사갈등), 교직만족도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측정 변인 간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결과, 교사효능감 특성 중 수업활동과 교육환경 특성 중 교육시설, 교직행정업무와는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사효능감 특성 중 생활지도는 교육환경 특성 중 교육시설과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환경 특성 중 교육시설은 동료교사 특성 중 직무협조와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항목 간 상관성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측정변수 상관관계

[Table 4] Measurement Variable Correlation

변인	1	2	3	4	5	6	7	8
수업활동(1)	1.00							
생활지도(2)	.62**	1.00						
교육시설(3)	.02	.00	1.00					
교직행정업무(4)	-.04	-.05*	.44**	1.00				
학업분위기(5)	-.05*	-.06**	.31**	.48**	1.00			
동료교사태도(6)	.24**	.18**	-.08**	-.07**	-.09**	1.00		
직무협조(7)	.28**	.22**	-.03	-.07**	-.06**	.53**	1.00	
교사갈등(8)	-.10**	-.08**	.15**	.16**	.10**	-.38**	-.42**	1.00
교직만족도(9)	.26**	.28**	-.09**	-.13**	-.14**	.47**	.39**	-.29**

* $p < .05$ ** $p < .01$, *** $p < .001$

가설 2. 교사효능감 특성, 교육환경 특성, 동료교사 특성은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효능감 특성, 교육환경 특성, 동료교사 특성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사효능감, 교육환경, 동료교사 변인 순서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과 같다. 모형1은 교사효능감 특성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모형2는 교사효능감과 교육환경 특성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모형3은 교사효능감 특성, 교육환경 특성, 동료교사 특성 모두가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3개 모형 모두 모형적합도(F)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다중공선성은 VIF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모형1 분석결과, 교사효능감의 수업활동($\beta = .145, t=5.912, p<.001$), 생활지도($\beta = .192, t=7.853, p<.001$) 모두 중등학교 교사의 교직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 $R^2 = .092$ 로 9.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모형2 분석결과, 교사효능감의 수업활동($\beta = .144, t=5.953, p<.001$), 생활지도($\beta = .185, t=7.639, p<.001$)과 교육환경의 교육시설($\beta = -.047, t=-2.179, p<.05$), 교직 업무부담($\beta = -.054, t=-2.321, p<.05$), 학업분위기($\beta = -.082, t=-3.730, p<.001$) 모두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 $R^2 = .112$ 로 나타나 교사효능감에 교육환경 특성을 추가했을 때 교직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약 2% 이상 증가하였다.

모형3은 모형2에 동료교사태도 항목을 추가하여 독립변수 모두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교사효능감에서는 수업활동, 생활지도는 모두 유의하였고, 교육환경에서는 학업분위기만 유의하였으며, 동료교사 특성에서는 동료교사태도($\beta = .316, t=15.262, p<.001$)와 직무협조($\beta = .137, t=6.423, p<.001$), 그리고 교사갈등($\beta = -.087, t=-4.470, p<.001$)이 중등학교 교사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모형3의 설명력 $R^2 = .296$ 으로 나타나 모형2보다 약 18.4% 정도 증가하였다.

[표 5] 교직만족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eaching Job Satisfaction

항목	모형1			모형2			모형3			VIF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3.475		16.768***	18.180		17.835***	10.216		9.105***	
수업활동	.311	.145	5.912***	.310	.144	5.953***	.081	.038	1.709*	1.685
생활지도	.419	.192	7.853***	.403	.185	7.639***	.348	.159	7.372***	1.620
교육시설				-.053	-.047	-2.179*	-.017	-.015	-.778	1.270
교직업무부담				-.099	-.054	-2.321*	-.072	-.039	-1.882	1.484
학업분위기				-.160	-.082	-3.730***	-.116	-.059	-3.016*	1.320
동료교사태도							.436	.316	15.262** *	1.480
직무협조							.313	.137	6.423***	1.573
교사갈등							-.202	-.087	-4.470***	1.301
종속변인 F R^2		교직만족도 123.881*** .092			교직만족도 61.301*** .112			교직만족도 128.172*** .296		

*p<.05 **p<.01, ***p<.001

4. 결론

본 연구는 중등학교 교사의 교직만족도 결정요인으로서 교사효능감, 교육환경, 동료교사 특성의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의 3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교사효능감 특성, 교육환경 특성, 동료교사 특성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1에서는 교사효능감 특성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수업활동과 생활지도 모두 중등학교 교사의 교직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의 자발적 활동은 교사의 수업역량을 높인다는 연구[22]를 지지하며, 또한 원활한 학생 생활지도가 교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직무만족이 높으면 학생 생활지도에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연구[23]를 지지하며, 직무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교사효능감이 교사의 수업 헌신도, 생활지도 헌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1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교사의 직무현장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업활동과 생활지도를 통해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근 COVID-19 대유행 시기를 지나면서 교사-학생 관계가 전통적인 수업활동과 생활지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졌다. 비대면 강의 특성에 따른 학생의 수업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이는 전략이 새롭게 요구되었고[24], 학생과의 1:1 상담 및 생활지도 역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었다[25].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직무만족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상황에 적절하고 창의성 있는 수업활동을 개발하고, 더 적극적으로 학생지도에 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모형2에서는 동료교사태도 항목을 추가하여 독립변수 모두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교사효능감의 수업활동, 생활지도 항목은 모두 유의하였고, 동료교사 특성의 동료교사 태도, 직무협조, 교사갈등 항목은 모두 유의하였지만, 교육환경 특성에서는 학업분위지만 유의하였고 나머지 교육시설, 교직업무부담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모형3의 설명력 $R^2=.296$ 으로 나타나 모형2보다 약 18.4%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중등학교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시설과 교직업무부담 효과는 동료교사특성 즉, 동료교사태도, 직무협조, 교사갈등이 중첩된 허위효과(pseudo effects)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형3의 결과는 동료교사특성 즉, 동료교사태도 인식이 좋고 동료교사와의 직무협조 관계가 좋으며 동료교사와의 갈등이 적으면 교사의 교직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교사의 학교 내 동료와의 관계가 교직만족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26]의 연구, 교사가 동료 교사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무스트레스는 낮고 교직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된 [27]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좋은 교사 동료관계는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킨다는 [28]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교사의 교사의 좋은 동료관계는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는 스스로 동료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혹여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 동료관계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지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사의 교직만족도는 학교 효과성(school effectiveness) 연구에서 중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의 고부담 책무성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29]. 하지만,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교사효능감, 교육환경, 동료교사 관계를

요인으로 한 교직만족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여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교육의 전달자인 교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자 하는 학교 정책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는 중등학교 교사의 교직만족에 끼치는 요인 중 선행연구에서는 별개로 제시되었던 교사효능감, 교육환경, 동료교사 특성 요인들을 함께 모아 그 영향력이 어떠하였음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교직만족은 어느 한 요소로 인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교사를 둘러싼 통합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 심리내적 요소인 교사효능감 요인과 심리외적 요소인 교육환경 그리고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동료교사 특성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교직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교사효능감, 교육환경, 동료교사 특성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살펴봄으로써 교직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선적 관심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알게 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청의 중등학교 정책 관계자 및 학교장 등이 참고하여 중등학교 교사의 교직만족도를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의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언과 한계점으로는,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청소년 패널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연구자료의 진행시점과 진행과정 등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함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추후 종단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장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H. Joo, J. Y. Uhm, K. Y. Park, A Study on School Leadership for Develop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15), Vol.21, No.1, pp.27-51.
UCI: G704-001273.2015.21.1.013
- [2] M. S. Lee, Analysis of teacher efficacy and teacher satisfaction changing patterns and influencing facto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Vol.20, No.17, pp.1123-1145.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7.1123>
- [3] OECD, TALIS 2013 resul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eaching and learning, OECD Publishing, Paris, pp.407-408, (2014)
Available from: <https://www.oecd.org/education/school/talis-2013-results.htm>
- [4] OECD, TALIS 2018 results(Volume I): Teachers and School Leaders as Lifelong Learners, TALIS, OECD Publishing, Paris, (2019)
Available from: <https://www.oecd.org/education/talis-2018-results-volume-i-1d0bc92a-en.htm>
- [5] M. S. Yoo, E. J. Seo, Awareness of Health Education Environment,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Schoo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6), Vol.30, No.1, pp.42-55.
UCI: G704-SER000009448.2016.30.1.011
- [6] H. J. Chung, J. W. Kim, A Qualitative Study on Administrative Work Experience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22), Vol.39, No.2, pp.251-273.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22.39.2.251>
- [7] S. H. Park, S. K. Lee, A Qualitative Study of the Burden of Teachers in Administrative Affairs and Policy Agendas Enhancing Instructional Abilities of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12), Vol.29, No.1, pp.371-396.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2.29.1.371>

- [8] H. R. Ku, S. H. Ham, Y. K. Cha, Y. S. Yang, Teachers Working in a Collegial Climate and Their Use of Autonomy-Supportive Instruction: A Three-Country Stud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Vol.14, No.3, pp.355-376.
UCI: G704-001586.2014.14.3.014
- [9] J. O. Park, H. S. Kwak, K. S. Kim, The Relationship among Teacher-Efficacy, Teacher Evaluation and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Motivation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 Vol.16, No.11, pp.879-900.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11.879>
- [10] H. Y. Kim, J. M. Hong,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Vol.17, No.19, pp.245-26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9.245>
- [11] H. J. Park, M. S. Lee, Teachers' entry motivation, job-related self-efficacy, satisfaction, and commitmen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19), Vol.36, No.1, pp.304-330.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9.36.1.304>
- [12] C. A. Guardino, E. Fullerton, Changing Behaviors by Changing the Classroom Environment,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2010), Vol.42, No.6, pp.8-13.
DOI: <https://doi.org/10.1177/004005991004200601>
- [13] M. Schneider, *Linking School Facility Conditions to Teacher Satisfaction and Success*, National Clearing house for Educational Facilities, (2003)
- [14] T. H. Park, J. G. Lee, The Effect of Class Environment of P. E. Class on Highschool Students' Flow and Education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port*, (2016), Vol.14, No.3, pp.339-348.
UCI: G704-SER000001967.2016.14.3.005
- [15] H. K. Kim, K. W. Kyung, The effects of work environments and aptitude on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2020), Vol.19, No.4, pp.161-186.
DOI: <https://doi.org/10.30761/ecoece.2020.19.4.161>
- [16] Y. H. Joo, J. Y. Jung,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ctors Affecting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20), Vol.26, No.2, pp.309-333.
DOI: <https://doi.org/10.29318/KER.26.2.13>
- [17] Y. H. Kang, Exploring the constructs of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08), Vol.21, No.2, pp.159-177.
UCI: G704-000649.2008.21.2.015
- [18] I. H. Hwang, S. H. Ja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Empathy Ability Scale and Job Efficiency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 Vol.12, No.2, pp.232-242.
UCI: G704-001475.2012.12.2.002
- [19] E. M. Yeon, H. S. Choi, The Relations of Teacher-Efficacy and Perception of Principals' Leadership and Peer Collaboration across Job Stress and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 Vol.19, No.9, pp.482-491.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9.482>
- [20] J. K. Hong, A Study on Empathic Understanding for Effec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2016), pp.563-577.
UCI: G704-SER000003102.2016...007
- [21] H. N. Lee, Y. M. Mo, E. S. Kim, J. A. Kim,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in South Korea: Identifying latent classes, tracking changes, and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lass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19), Vol.37, No.2, pp.175-196.
DOI: <https://doi.org/10.22553/keas.2019.37.2.175>
- [22] Y. M. Back,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Factor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in college students -Focus on Neuroticism and Conscientiousnes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 Vol.18, No.6, pp.219-22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219>

- [23] E. J. Jang, Y. J. Yoo, A Study of the Correlations Among Private Beauty High School Teachers' Job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tudent Guidance,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2015), Vol.11, No.2, pp.147-153.
DOI: <https://doi.org/10.15810/jic.2015.11.2.008>
- [24] J. H. Kim, E. J. Myoung,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supports on teachers' digital literacy through teachers' stress and collaboration for online teaching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022), Vol.26, No.2, pp.119-143.
DOI: <https://doi.org/10.22590/ecee.2022.26.2.119>
- [25] H. Y. Han, J. M. Le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Barriers of Non-face-to-face Counselling and the Difficulties of Student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ounselling Teachers in an Era of Covid-19, Teacher education research, (2021), Vol.60, No.1, pp.51-66.
DOI: <https://doi.org/10.15812/ter.60.1.202103.51>
- [26] E. K. Kim, J. R. Ahn, The Effect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Care Teachers on Their Role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2014), Vol.8, No.1, pp.25-45.
UCI: G704-SER00002260.2014.8.1.011
- [27] H. J. Kim, Y. A. Back, Y. K. Lim, Relationships among job satisfaction, teacher efficacy, and empath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2017), Vol.12, No.1, pp.53-72.
DOI: <https://doi.org/10.16978/eccc.2017.12.1.003>
- [28] M. J. Kim, S. H. Park,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aborative Culture on Early Childhood Teacher's Empowerment,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 No.87, pp.187-210.
UCI: G704-000724.2014..87.005
- [29] J. E. Talbert, M. W. McLaughlin, Assessing the school environment: Embedded contexts and bottom-up research strategies, In S. L. Friedman & T. D. Wachs (Eds.), Measuring environment across the life span: Emerging methods and concep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9), pp.197-227.
DOI: <https://doi.org/10.1037/10317-007>